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25일(수) 제 3287호

군산시장 '초접전' 강임준 오차범위 내 선두

전북타임스 여론조사 판세 '혼전'
강임준 24.2%·김영일 20.1%
격차 4.1%p 오차범위 내 경쟁
민주당 지지층서도 강임준 앞서
투표 의향 '반드시' 94% 높은 관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 판세를 가늠할 여론조사에서 강임준 현 시장이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100%) 결과, 차기 군산시장 적합도에서 강임준 시장이 24.2%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로 뒤를 이으며 두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1%포인트로, 표본오차(±3.7%포인트)를 감안할 때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그 뒤로는 김재준 10.6%, 진희완 10.3%, 나종대 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동석 6.3%, 박정희 5.9%, 이주현 4.3%, 최관규 4.2%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후보'는 2.0%, '없음' 2.1%, '모름'은 0.7%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강임준 시장이 27.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김영일 위원장(20.6%)이 뒤를 이었다. 이어 김재준(10.7%), 진희완·나종대(각 10.1%) 순으로 조사돼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85.9%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조국혁신당 4.4%, 국민의힘 3.8%, 무당층 2.8%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이 39.4%로 가장 높았고, '도덕성·청렴성' 24.8%, '인물·능력' 24.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소속 정당'은 7.8%, '출신 지역·학교'는 1.5%에 그쳤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하겠다' 94.1%, '가급적 투표하겠다' 4.6%로 나타나,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해 보정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 ARS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 포인트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준호 기자

민·관·군·경 한자리 통합방위태세 점검 나서

전북도는 24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를 갖고 테러 대응 체계와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조배숙 "좋은 전북지사 후보 찾아"

"의미있는 지역에 후보 낼 것"

조배숙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24일 '6.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사 후보를 내기 위해 덕망있는 좋은 분들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렵지만 좋은 전북지사 후보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엄으로 당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많이 어려워졌고,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호남 동행 활동 등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다. 좋은 분들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좋은 후보들이 선거비 보전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단체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분들도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에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바빴지만 이제부터는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민주당, 정읍·김제·남원·완주 단체장 후보 발표…경선 본격

2차 심사 4개 시군 17명 후보 확정
정읍 5인 예비경선 후 본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2차 심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심사 대상 지역은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등 4곳이다.

지역별 후보자 수는 정읍시 5인, 남원시 4인, 김제시 4인, 완주군 4인 등 총 17인이다. 이로써 전북지역 14개 기초단체장에 대한 후보자 심사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선 방법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예비경선은 후보자가 5인 이상인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읍시가 해당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이고 상위 4인이 본경선과 결선을 진행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는 본경선과 결선을 실시한다.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이 해당된다. 권리당원 50%와 국민여론 50%를 각각 반영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이 진행된다.

한편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아래와 같다.

정읍시(5인) : 이학수, 이상길, 김대중, 안수용, 최도식

남원시(4인) : 김영태, 김원종, 이정린, 양충모

김제시(4인) : 정성주, 임도순, 강영석, 나인권

완주군(4인) : 임상규, 서남용, 유희태, 이돈승

/장정철 기자

임실군수 경선 '안갯속 판세'…김진명 우세 속 박빙

전북타임스 실시 여론조사 판세
김진명 27.3% 선두·한득수 추격
상위권 촘촘…변수 많은 구도

오는 6·3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군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김진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타임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적합도는 김진명 후보가 27.3%로 가장 높게 조사된 가운데 이어 한득수 후보 21.6%, 김병이 후보 18.1%, 한병락 후보 16.8%, 성준후 후보 11.4% 순으로 나타났다. 신대용 후보는 0.7%, 기타 2.0%, '없음' 0.7%, '모름' 1.4%로 집계됐다.

김진명 후보는 2위 한득수 후보와 5.7%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오차범위(±4.4%p)를 감안할 때 접전 양상으로 해석된다. 상위 4명 후보 간 격차도 크지 않아 향후 선거 구도는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공약'이 3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덕성·청렴성' 27.8%, '인물·능력' 24.6%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은 9.5%, '출신 지역·학교'는 3.9%에 그쳤다.

유권자들이 정책과 자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91.1%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2.7%, 무당층 1.5%로 조사됐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96.7%, '가급적 투표'가 2.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9% 이상이 투표 의사를 밝히며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치를 부여해 결과를 산출했으며, 표본조사의 특성상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4% 포인트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준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전북도 '데이터 개량' 고능력 한우 성과 입증

1++ 출현율 53.8% 전국 평균 12%p↑
도체중 증가로 품질·수익 개선
마리당 102만원 추가 소득 효과

전북도는 특별법 및 한우육성 조례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고능력 한우 지정·관리 정책의 실질적 개량 효과가 도축성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과 협력해 2025년 출하된 고능력 한우 후대축의 도축성적과 농가 수취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고능력 암소에서 태어난 후대축이 전국 평균 대비 등급과 체중, 소득 모두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북 고능력 한우 후대축의 1++ 등급 출현율은 53.8%로 전국 평균(41.5%)보다 12.3%포인트 높았고, 평균 도체중도 502.7kg으로 전국 평균(478.1kg)보다 24.6kg 더 나갔다. 등급과 중량이 동시에 개선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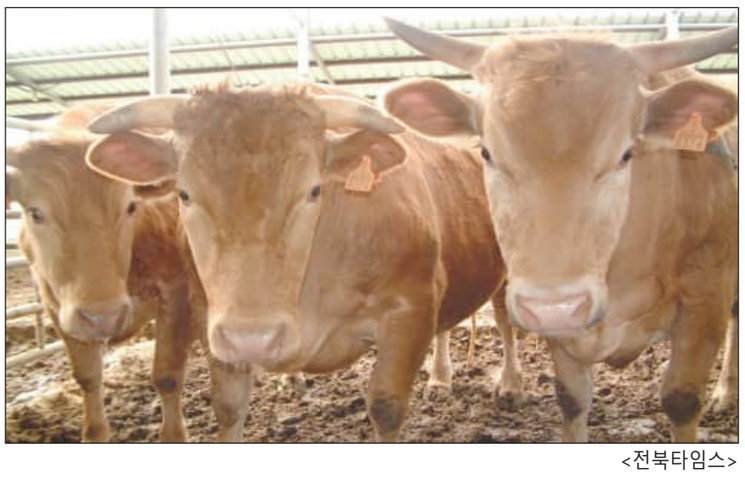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뚜렷했다. 고능력 한우 후대축은 전국 평균 대비 마리당 약 102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출하된 1,845두 기준으로 약 19억 원의 농가 소득이 추가로 창출됐으며 현재 도가 관리 중인 고능력 한우 9천여 두가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낼 경우 연간 95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유전체 분석사업에 약 29억 원을 투입해 95억 원 규모의 소득 효과가 확인되면서, 한우 개량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도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규모인 5만7천 두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능력 한우 9,399두를 지정·관리하는 등 데이터 기반 개량체계를 구축해 왔다. 친자확인, 혈통등록, 유전체 분석, 계획교배, 저능력 암소 도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개량체계가 이번 도축성적 향상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전북은 한우 개량 분야에서 이미 전국 상위 수준의 1++ 출현율을 유지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암소 선발에서도 가장 많은 개체가 선정되는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번 분석은 이러한 성과가 실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아울러 2026년에 도축된 고능력 한우


<전북타임스>

후대축 200여 두의 데이터를 추가 분석에서도 등급 및 도체중 성적이 더욱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득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석은 이러한 성과가 실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도는 앞으로 가축시장 거래 시 고능력 한우 및 후대축 표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임실축협과 협력해 가축시장 표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능력 한우 표시제가 도입되면 가축시장 거래 과정에서 우수 유전형질을 가진 개체의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되고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 농가들이 개량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체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 참여와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의 한우 개량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과학적 개량을 통해 농가 경쟁력과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전국 최고의 한우개량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삼일 변호사, 전북도 감사위원 위촉

보궐 인사로 잔여 임기 수행
감사 정책 및 결과 심의·의결

이삼일 변호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4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법무법인 길담 소속 이삼일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임자의 사직에 따른 보궐 인사로, 이삼일 신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다.

이 감사위원은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길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촉으로 여성 법조인이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감사 행정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여성 법조인의 참여로 감사 행정에 보다 다양한 시각과 균형 잡힌 판단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자치감사 환경을 확립해 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오늘 군산에서부터 시군 순회
전국 첫 현장 참여형 경선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이 2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키로 했다.

도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단체장 합동연설회는 25일부터 진행되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와 2차 심사 발표 지역별로 나뉘어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연설회 참여는 도당 공관위로부터 경선후보자로 확정된 뒤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1차 지역 합동연설회는 9곳이 대상이고 매일 오전·오후로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25일 군산(오후) ▲26일 부안(오전)·고창(오후) ▲27일 장수(오전)·순창(오후) ▲28일 익산(오전)·전주(오후) ▲29일 무주(오전)·진안(오후) 순이다. 임실군과 2차 심사 발표 예정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완주는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연설회는 공천 심사가 서류·면접 중심의 심사 평가라는 한계를 보완하고 후보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한 '보여주는 시스템'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북도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 가운데 전국 최초로 지역 현장에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동일한 무대에서 후보들의 소통 능력 비교 등 공개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전북 발(發) 새로운 정치 혁신 사례가 기대된다.

도당은 "도당 유튜브 생중계 병행하기로 했다"며 "시간과 지역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관심을 높인 참여형 경선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문승우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해야…형평성 한계"

시도의장협서 지방의회법 보완·촉구
특례법 권한·문제·인력 실효성 지적

문승우 도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당사자인 지방의회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등 향후 추진 일정도 공유되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처 내부 토의만 우선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재 '책임과 견제는 없고 권한만 비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감한 권한 부여와 자율성, 이에 합당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정동영, AI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균형발전 모색

수도권 집중 해소 전략 논의
AI 활용 지역 소멸 대응 방안 제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4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집중을 깨다: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4회 AI-DX미래포럼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와 AI-DX미래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수도권 집중을 깨다: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이다. 지금까지 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행정 효율화 도구로 쓰이던 AI를, 지역 경제 쇠퇴와 인구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파할 강력한 생존 도구이자 '지방분권 3.0'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한다. 나아가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인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AI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

세미나는 안준모 고려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안 교수는 '변방 아닌 모두가 중심: 지방정부 AI 전환 전략과 2026 입법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지자체 선거 이후의 범 AI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임도빈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패널로는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원희 스페이스뱅크 대표 ▲오상진 광주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장준영 세종 변호사/국가AI전략위 위원이 참여한다.

대표 주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판을 짜는 실질적인 입법 과제 도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지리산 국립공원, 안전 불감증 만연

전북지사 신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부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지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을 감독하는 공사 관계자조차 신호수와 작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포크레인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신호수는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사 구간을 알리는 안전 표지와 통제 조치 역시 미흡해 탐방객과 차량 운전자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지나던 이용객이 "도로를 관리할 신호수도 없이 도로를 차단하고 굴삭기가 작어를 해도 되느냐"고 묻자, 공사 관계자는 "신호수가 왜 없느냐,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용객이 "신호수가 누구냐"고 재차 질문하자 공사 관계자는 "내가 신호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제 제기에도 "포크레인으로 잠깐 자재를 나를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지사 신축 공사 현장

도로 점용이나 중장비 작업이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배치는 필수적인 안전 조치로 꼽힌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처럼 탐방객과 일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에서는 보행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도로를 점용한 상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신호수(교통 유도요원)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관리 핵심 인력이다. 관련 기준은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교통관리지침' 등에 명시돼 있으며, 신호수는 식별과 안전 확보를 위해 형광색 안전조끼(야간 반사 기능 포함), 안전모, 신호봉 또는 깃발 등을 갖춰야 한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작업 시에는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를 위한 별도의 신호수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작업자가 신호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공사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은 어린이와 고령층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만큼 일반 도로보다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지사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한다.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주향교 공기 2577년 춘기 석전대제 봉행

유교적 제례 의식 전범 국가무형문화유산 가치 되새겨

24일 오전 전주향교 대성전에서 공기 2577년(2026년) 춘기 석전대제가 엄숙히 봉행했다.

'석전대제(釋奠大祭)'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일제히 봉행되는 의식이다.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이 행사는 유교적 제례 의식의 전범(典範)으로 꼽히며 그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86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전주시 후원으로 실시된 석전대제는 오전 8시 계성사제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본 행사인 전폐례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수조례, 사신례, 망료례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이번 석전대제의 제관으로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초헌관) △최귀호 유도회 전주지부 회장(아헌관) △박병년 유도회 전주지부 부회장(종헌관)이 각각 봉행했다.

/정소민 기자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예비입주자 모집

72명 모집 월 임대료 1만원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평화동에 신축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모집 대상 주택은 완산구 모악로 4685-22(평화동)에 위치한 청춘★별채 24호로, 2룸 21호와 1룸 3호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선순위자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총 72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3배수)할 계획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지난 19일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해당된다.

공급 유형은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우선 공급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피해자(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함)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이 배정된다.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원에 월 임대료 1만 원(방 수 기준)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가 거주 중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1인 청년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10평형(약 33㎡) 위주로 설계돼 실용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개별 호실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주요 생활가전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돼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시는 단순 주거공급을 넘어 청년 입주자들의 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했으며,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후 순차적으로 계약과 입주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주거 '월세' 지원

부모와 별거 19~34세 무주택 청년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22억원 이하 △(청년+부모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단, 지난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대상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지원 희망 청년은 접수기한 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시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약 5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시공사 보광종합건설 본사 방문 간담회 및 MOU 체결

전주시의 노력으로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시는 24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보광종합건설(주) 본사를 방문해 지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광종합건설(주)은 덕진구 진북동에 10개 동, 지상 20층 총 6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신축공사 시공을 맡고 있다.

시는 보광종합건설(주)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의 하도급 참여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련 인허가 사항의 신속한 처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 등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동지역 분쟁으로 침체된 전주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일반건축물과 공용건축물, 공공사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까지 수주 활동 범위를 확장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영양더하기 사업 지원

관련 기관 4개 대표 간담회 추진 만성질환 대상자 저염·저당식 추가

전주시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영양더하기 '도시락·밑반찬·영양죽·음식재료·저염·저당식' 사업 추진 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전주시 노인복지과장, 전주지역자활센터장, 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전주시니어클럽 관장 등 4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사업추진방향 △기관별 사업 발굴 △애로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시의 영양더하기 사업은 일반도시락과 밑반찬, 영양죽, 음식재료, 저염·저당식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고혈압과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저염·저당식이 추가됐다.

저염식과 저당식은 각각 서원시니어클럽과 전주시니어클럽이 맡는다.

영양더하기(도시락, 밑반찬, 영양음식, 음식재료, 저염·저당 도시락)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20%, 일반 대상자 100%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에서 상담 후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전기차충전구역 단속 올해 1억 이상 과태료 부과

22년부터 현재까지 8억 이상 과태료 부과 "자랑인지" 충전구역 개선 위한 "과태료인지"

전주시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관련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에 따른 전주시민부과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단속건수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단속 건수 결과로는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충전구역 내 주차에 의한 단속이 대부분이다. 또 매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증가되지만 시민들의 한숨은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자동차기업 기술성장에 의한 전주시민 전기차량은 증가지만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충전구역 충전시설 부족임에도 시는 시민 차량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2년 1526건(과태료 5877만2500원), 2023년 2993건(2억936만9900원), 2024년 4100건(2억1806만8600원), 지난해 4716건(2억7955만3520원) 과태료 부과금은 총 7억6576만4520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전주시는 2026년 상반기 3월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총 1743건을 적발하며 시민 차량들에 총 1억290만444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상황속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주시민들에게 2026년에도 전기차 구입 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한 시점으로부터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지방상수도 맞춤형 기술지원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술지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9개 시·군의 정수장, 상수관로 등 15개 수도시설로, 주요 기술지원 내용은 △안정적인 정수처리 △인공지능(AI) 기술 시범 운영 △위생안전 인증제 도입 지원 △상수관로 유수율 제고이며 시설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최적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수장 약품투입 공정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 변동에 따른 최적의 약품 주입률을 도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정수장의 자율운영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또 2025년도부터 시행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20개 항목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성범죄 예방 T/F팀 구성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스토킹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 선제적·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및 사건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점검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분노와 집착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TF팀' 13명을 구성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출소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착용과 민간경호를 실시하는 등의 전방위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공서 납품 미끼로 접근… "신종 수법 진화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최근 관공서 납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업체 대표조차 속을 뻔할 정도로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인쇄·출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전 도교육청 소속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당 인물은 "기존 거래업체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인쇄업체를 찾고 있다"며 "발주 물량이 상당하다"고 설명했고, 며칠 뒤 미팅을 약속했다.

문제는 미팅을 앞두고 벌어졌다. 미팅 이틀 전, 이 인물은 다시 전화를 걸어 "학교에 납품할 간이 소화전 세트를 급히 구매해야 한다"며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어 바로 결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공급업체를 지정하며 "도매가 대비 개당 7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

A씨는 의심을 크게 하지 않은 채 해당 공급업체에 연락해 가격을 확인했다. 공급업체 역시 이미 해당 인물과 통화한 듯 납품가와 도매가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다.

이후 A씨가 납품 일정을 묻자 "다음날 오전까지 납품해야 한다"며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A씨가 "행정기관의 구매 절차치고는 지나치게 급하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인물은 "기존 업체가 신뢰를 잃어 급히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을 잘 처리하면 향후 인쇄 발주를 지속적으로 맡기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공급업체와 구매를 협의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공급업체는 "전액 현금 입금이 확인돼야 출고가 가능하다"고 요구했고, A씨가 부담을 느끼자 "50% 선입금을 조건으로 나머지는 현장에서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의구심을 느낀 A씨는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에게 직접 만나 확인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인물은 "창고 작업 중이라 이후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만약 계약금 10%만 요구했더라면 급한 일정에 쫓겨 입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기간 관공서 납품을 해왔음에도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질 뻔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범행은 사전에 업체를 물색한 뒤 신뢰를 쌓고, 실제 거래가 성사될 것처럼 기대를 부풀린 뒤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공서 납품과 예산 집행을 내세워 신뢰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유통업체까지 연계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긴급 납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화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현금 입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은 기존 금융사기 형태를 넘어 실제 거래를 가장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 취재부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한국 의장국 수임

'온실·환경제어' 국제표준 개발 주도권 확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내에 '온실·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 정식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신설되고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작업반 신설은 지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 제5차 총회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3월 15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23년 신설돼 작물 용어, 온실 환경제어, 병해충 관리, 스마트 관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설된 작업반은 데이터 기반 농식품 시스템 기술위원회 내 두 번째 정식 작업반으로 온실, 환경제어 및 도시농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 제정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기관들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환경제어 농업 시스템 관련 신규 국제표준 제안(NP)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10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단계별 검토를 거쳐 약 36개월 내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표준화 추진은 우리나라 스마트팜 데이터와 환경제어 기술을 국제기준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내 스마트농업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표준 작업반 신설 및 표준 제안 성과는 우리 농업기술이 세계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을 확대해 온실, 노지, 도시농업을 아우르는 환경제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식품기업 우수사례' 발굴

생강 가공식품 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23일 완주군 용진읍 소재 농식품 기업인 '홍삼이생강날때'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완주지역 우수 농식품기업의 성장성과 현장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삼이생강날때는 2019년 설립된 완주 소재 농식품 제조기업이다.

"생강을 호불호 없이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 원물 선별, 스크류 착즙, 저온 살균 공정 등을 통한 생강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린 생강청, 홍삼액, 아기과자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완주 생강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세를 이끌어 가기 위해 2024년 전통식품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과 박람회 참가 지원을 했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전북농생명 대표기업 지원사업(창업스타)을 통해 제품 고급화 등을 지원해 2024년 매출 6.6억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성장시켰다. 같은 기간 고용인원도 1명에서 9명으로 증가해 지역 농식품산업의 성장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 권요안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갖고, 기업의 생산 및 판로 확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유망 농식품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고도화, 소비자 접점 확대 등 후속 단계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또 향후 홍삼이생강날때가 꾸준히 매출 10억원 이상의 성장단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자치도와 함께 농생명·식품산업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북 농생명 대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스타·성장스타·리딩스타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렴문화 조성·윤리경영' 청렴 선포식 개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 다할 것"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4일 공단 본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선포식에는 김성주 이사장, 류지영 상임감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진과 전국 지사장 112명 등 총 14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투명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청렴 실천 과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외부 간섭 및 청탁 거부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렴은 국민연금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임원과 전국 지사장들이 앞장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연금이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하도록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영덕 풍력발전 화재 적극 대응

남화영 사장, 현장 이동

남화영 사장

지난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현장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남화영 사장은 현장을 확인해가며 "풍력 유지 보수작업으로 발생한 사고로, 향후 사고원인 파악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추진

기술고도화 지원도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참가 신청은 4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농업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사업화와 기술고도화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기술사업화 부문에서는 노지 분야 농업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AI 기술 실증 및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며, 기술고도화 부문에서는 기반 기술 확보 및 AI 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모집 규모는 △기술사업화 분야 '시제품제작 지원 2개사(기업당 최대 4천만원) △기술확산 지원 4개사(기업당 최대 8천만원) △기술고도화 분야 '기술확보 지원 3개사(기업당 최대 3천만원)·신뢰성평가 지원 2개사(기업당 최대 1천만원)'로 총 11개사를 모집한다. 단, △기술사업화 분야 △기술고도화 분야 모집 간 동시 지원은 불가.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지사,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AI·SW·ICT 및 지능형 농업 관련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수행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R&D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신규 수출입기업 더블혜택 이벤트'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신규 수출입기업 고객 확보와 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JB 신규 수출입기업 더블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핀테크 업체의 수수료 인하 경쟁 속에서 기업 고객의 외환 업무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전북은행에서 수출입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기간 내 전북은행을 통해 수출입업무 USD 10만 달러 이상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외환업무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경품을 제공해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벤트 내용으로는 매월 실적 상위 2개 업체에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을 증정하며, 이벤트 기간 전체 누적 실적이 가장 높은 업체(실적 50만 달러 이상 충족 시)에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증정한다.

월별시상과 누적시상은 중복 가능하며 우수기업의 경우 최대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거래의 핵심인 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업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외환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사진=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협회 전북도회, 하계올림픽 유치 릴레이 동참

중동전쟁·금융산업 변화 전략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24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전북도민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단체 대표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소재철 회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로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 확정

추진단 회의 개최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39개 세부 과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주요 간부 등 51명으로 구성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4개 분야, 3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반부패 추진 기반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제도 혁신 △청렴 문화 확산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다.

도교육청은 특히 관행적인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학교 운동부 운영과 교육공무직 채용 분야를 겨냥해 고강도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 단체가 참여하는 청렴 거버넌스를 확대해 내부 감사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 대상 청렴 교육도 병행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렴 연극, 학생의회 간담회 등을 새롭게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내달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 거버넌스 점검단을 꾸려 확정된 세부 과제들을 본격적인 실행에 옮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정책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모든 교육 가족이 동참해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천호성 예비후보, 40개 과제 담은 공약집 발간

기초학력 책임제·AI 등
5대 핵심 과제 제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5대 비전과 40개 중점 과제를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70일간의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천 예비후보는 2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며 정책공약집 발간과 '전북교육 혁신 70일 대장정' 시작을 공식화했다.

이번 공약집은 '출생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책임교육 실현'을 목표로 구성됐다.

핵심 과제로는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구현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4차원 교육안전망 구축 △AI 시대 학생 미래역량 교육 전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지역·산업 연계 상생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천 예비후보는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약정을 언급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이 지역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야 함을 강조했다.

천 예비후보는 "오늘부터 공약집을 들고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도민에게 공약을 설명하고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타임스>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전북대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협력'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해외 연계 통한 확산

전북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해외 연계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글로벌 확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의 의료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웰니스·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전북대학교병원 온고을홀에서 진행됐으며, 이경윤 대표이사와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문화·관광 분야 융복합 아이템 공동 발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해외 의료·관광 교류 및 의료서비스 연계 △외국인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치유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전북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의료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유한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강화하고, 전북 의료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한편, 재단과 전북대학교병원은 향후 공동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의료관광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jbct.or.kr)이나 관광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과서 지원

1천명 대상…여유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를 무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뒤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이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가 전입생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여유분 교과서를 취합해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교과서 신청은 학기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학기 교과서는 내달 이후, 2학기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된 보유 교과서 목록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재비 부담을 덜고 동등한 공교육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유분 교과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아동학과, 전공 수업에 '실시간 번역' 도입

전북대학교가 학과 전공 수업에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정규 학위 과정 편입을 유도하고 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과 '보육학개론' 강의에는 한국 학생 30명과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2명) 출신 교환학생 등 총 45명이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활용해 함께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대학 측은 유학생들의 전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놀이치료' 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수강생 전원이 참여하는 교내 어린이집 현장 견학을 진행해 한국 보육 제도를 직접 체험하는 실무 교육을 제공했다. 국제처 지원을 통한 한·중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이러한 맞춤형 시스템과 실무 지원은 유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태연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북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과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이남호 예비후보, 후원회 공식 출범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전주시 평화동에 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24일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후원회장으로는 지역 경제계 인사인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전일목재산업 대표)이 위촉됐다. 개소식에는 김 후원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과 교육 및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교육감 선거 경쟁 주자인 유성동 예비후보도 행사장에 직접 참석했다. 유 예비후보는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병진 후원회장은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AI 및 로봇 기반의 미래 교육이 지역 경제의 실질적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단순히 학교를 유지하는 시대를 넘어, 학교로 지역을 살리는 구조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교육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주거·일자리 등 4개 분과 청년 협의체 가동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제 행정 시책에 담아내기 위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청년 위원 27명, 관계 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출범한 청년협의체는 대학생·직장인·창업가·농업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관내 청년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소통·문화 등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지역 청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는 협의체 위원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발굴된 아이디어를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제 행정 사업으로 구체화해 정책 체감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정읍시는 청년협의체가 제안하는 참신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이 정읍시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시민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군산시는 시의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2026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저출산, 보육,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았고, 특히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수록해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임신·출산 준비를 시작으로 신생아·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및 청소년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과 관련 기관 안내까지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시는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세분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수록해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10만 인구 사수 위한 유관기관 협력 대응 총력

정읍시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다솜학교와 정읍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기관장 면담을 진행하고 정읍시의 전입 활성화 지원 시책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유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시는 주요 혜택으로 전입 유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전입 지원금 확대 시행, 전입 청년 이사 비용 지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소속 직원들의 정읍 전입을 독려했다. 특히 현재 관사를 이용하거나 정읍에 실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전입할 수 있도록 사내 소통망을 활용한 기관 자체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국비 확보 위해 '선제 대응'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익산 식품박물관 등 핵심사업 건의 및 설명

익산시가 4월부터 시작되는 2027년 국가예산 부처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적극적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 최재용 부시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면담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국적 거점 조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사업'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식품과 문화가 결합한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등 식품산업 분야 주요 사업도 적극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해당 사업은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으로,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부처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예산 편성이 끝나는 5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오션팔레트' 6월 19일 개장

서해 대표 해양관광 거점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군산 오션팔레트' 조감도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군산 오션팔레트'를 오는 6월 19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해양레저 체험을 중심으로 휴양과 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서해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해양레저체험 시설을 핵심으로 한 '오션팔레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개장을 앞두고 안전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병행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인공파도풀, 실내서핑장, 잠수풀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공간과 함께 캠핑장, 휴식공간 등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이 단순 관람이 아닌 직접 체험 중심의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펜스, 인명구조함, 응급치료실 등 재난안전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내 모든 시설 설치를 완료해 개장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저체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오션팔레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업체인 ㈜조이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체계에 돌입한다. 단지 내 주요 시설은 5월 말까지 완료한 후 개장 전까지 시운전과 운영 점검을 실시해 시설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오션팔레트'는 해양레저체험을 중심으로 캠핑, 휴식, 자연경관 감상이 가능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조성되며,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관광권역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해의 낙조, 몽돌해변, 갈대밭 등 자연경관과 해양레저체험이 결합된 공간으로, 방문객이 체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레저체험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은경 교통항만수산국장은 "오션팔레트는 해양레저체험을 중심으로 한 군산 해양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개장 전까지 철저한 시운전과 안전 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 취업 기반 강화

정부·대학과 고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익산시가 청년들의 취업 확대와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대학과 일자리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익산시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원광대학교와 함께 24일 시청에서 '청년고용 미래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업 취업 연계 및 채용 매칭 지원 △청년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취·창업 지원사업과 기업 발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원광대학교는 취업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운영, 기업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는 물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병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대학에서 쌓은 역량이 지역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중동발 유가 불안에 '현장 행정' 총력

주유소 등 방문…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정읍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자 지난 23일 관내 주유소와 착한가격업소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제 정세 불안이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내 건전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먼저 관내 주유소를 찾은 이학수 시장은 유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 현장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주유소 관계자들에게 유가 상승기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착한가격업소에서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주들을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상생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시는 현장 점검과 병행해 인근 상권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합리적인 소비 참여를 독려하는 물가 안정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석유류 가격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 최우수 선정

10년 연속 수상 쾌거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인허가 처리 신속성, 규제 개선 실적, 공모 사업, 기업 유치 성과 등 총 1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시는 매년 기업 친화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전담 공무원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읍시는 전략적인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강력 대응

법률안 폐기 촉구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돼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해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연계될 경우 군산시 해양관할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경 교통항만수산국장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업인 안전도 스마트하게 지킨다

익산시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생활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중소형 트랙터에 사물인터넷(IoT) 안전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사고 감지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업 중 농기계 전복이나 추락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단말기가 이를 즉시 감지해 위치 정보와 사고 상황을 보호자와 익산시CCTV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구조와 초동 대응이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스마트정보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호원대학교>

호원대 RISE사업단, 로컬콘텐츠 창업가 양성 추진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23일 교내 회의실에서 ㈜지방, ㈜작정과 함께 '지역특화 JB-로컬콘텐츠 창업가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컬 3.0 '대학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로컬콘텐츠 기반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호원대 RISE사업단 관계자와 ㈜지방 조권능 대표, ㈜작정 송효웅 대표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2차년도 사업 협력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함께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참여 기업 사업장 방문형 창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리빙랩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실전형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이다.

특히 참여 기업의 실무 경험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실제 창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JB-로컬콘텐츠 창업가 양성사업 과제책임자인 김나형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최우수

기업애로 해소·지원
투자유치 성과 인정
인센티브 6천만원 지원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도내 최초 3년 연속 최우수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밀착형 행정과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고창군은 기업애로 해소, 신속한 행정지원,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신활력경제정책관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행정에 반영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공장 설립 '입지' 분야 전국 톱10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평가로도 이어졌다.

또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2025년 평가자료 기준 접수된 기업의 어려움 61건 중 56건을 해결해 높은 애로 해소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 지원, 채용 연계, 판로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인·허가 등 신속처리단 운영을 통해 기업 관련 민원 54건을 처리하고, 25건은 처리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장등록 변경 민원을 신청 당일 처리하는 등 기업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3년 연속 최우수 선정은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결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정주여건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립도서관, 지역작가 아카이브 본격화

김영 작가 도서 전시 추진

김제시립도서관은 지역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 '김제에 서(書) 찾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를 배경으로 한 도서와 김제 출신 작가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 북큐레이션, 북콘서트, 전자책 제작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민과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도서 기증을 통해 '책' 중심의 지역 기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시작된 테마별 전시의 첫 번째로 '김영 작가 도서 전시'를 마련했다. 성덕면 출신 김영 작가와 김제시 정보통신과의 협조로 성덕면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연계했다.

김영 작가는 김제 지역의 삶과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김삿갓문학상과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한 지역 대표 문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요 작품과 수상 이력, 작품 속 배경이 되는 김제의 모습을 함께 소개해 책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번 사업은 매우 뜻깊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김제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쌓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결핵예방주간 운영

부안군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결핵 검사(흉부 X-선)를 통한 조기 발견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4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검사,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기침예절 등의 내용으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결핵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읍·면 노인일자리 어르신 및 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사 및 결핵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와의 기침, 재채기, 대화 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배출돼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이유 없는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

군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증상이 없을 수 있어 매년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 주민들도 2주 이상 기침 시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일자리정책 위원회 및 비전 선포식

고용률 72.6% 목표
일자리 기회도시 실현

김제시는 24일 '2026년 일자리정책 위원회 및 일자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 고용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이현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서장 및 시의원, 일자리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협회, 청년창업가 등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5년 일자리정책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시는 지난해 고용률(15~64세) 72.4%를 달성해 전국 평균 대비 2.3%p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고용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김제일자리센터 운영, 김제상공회의소 개소, 투자기업 유치 및 맞춤형 인력양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고무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올해는 '지평선(지역특화 평생일자리로 지역소멸위기 선제대응)'이라는 민선 8기 일자리 비전 아래 일자리 목표를 고용률(15~64세) 72.6%, 취업자 수 49,649명으로 설정하고, '더 특별한 내:일(My job), 일자리 기회도시 김제'를 실현하고자 175개 사업에 2,752여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진행된 일자리 비전 선포식에서는 김제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정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현서 부시장은 "지난 성과는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청년과 기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총력

체납자 추적·번호판 영치 집중

부안군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자 거주지 및 생활 실태 등 현장 중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분납 유도, 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주 3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 운행 동선을 추적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일제정리기간 홍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문을 병행 발송해 납부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질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일제정비 추진

김제시는 202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지정하고,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재지정 심사를 통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김제시는 총 3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규 신청업소와 기존 지정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거쳐 4월 말까지 신규 지정과 일제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물가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신규업소 발굴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대거 발굴

2027·28 4차 발굴
124건 9317억원 규모

지난 23일 개최된 2027·28 국가예산 4차 발굴 보고회 <사진=고창군>

고창군이 지난 23일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2027·28 국가예산 4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4차까지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은 총 124건 9,317억원 규모로 이 중 '27년 사업은 83건 6964억원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해리면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 고창노동골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특히, 고창군은 지특회계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지특회계 대응 국가예산 발굴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20여 건의 국가예산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군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높고 군민 체감도가 큰 '옥석 사업'을 선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설득할 논리를 한층 보강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3~5월까지 부처 예산편성 작업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월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오는 4월 말까지 일제 출장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부처와 전북자치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관내 3개 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고창군 관내 3개 향교 대성전(고창·무장·흥덕)에서 24일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각 향교마다 헌관, 제관, 유림 및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대성전(문묘)에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내는 제사 의식이다. 고창군 내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4성, 송조 6현, 우리나라 18현 등 총 27현의 위패를 모시고 봉행하고 있다.

석전대제는 시작을 알리는 창홀과 향을 피우는 분향례에 이어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차례로 공자 등에게 술을 따르는 헌례와 분헌관들이 성현들에게 술을 올리는 분헌례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음복례·망예례로 마무리된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석전대제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우리의 정신문화와 배움의 가치를 이어주는 소중한 전통이다"며 "선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가 양성 나섰다

고창군보건소가 군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지역사회 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교육은 4월10일까지 총 8차례(64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교육 이수 후 대한적십자사가 인증하는 전문 강사 자격증을 받게된다.

이를통해 배출된 심폐소생술 전문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일선 현장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교육 과정은 응급처치 일반과정(8시간)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행동요령 △성인및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손상(연부조직, 출혈, 근골격계) 응급처치 교육 전문과정(48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평가과정(8시간) △이론 및 실기 △모의 강의 평가 등으로 향후 지역내 사업장, 학교, 경로당, 기관·단체 등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직접 실시, 군민 누구나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응급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보건기관에서 현장 중심 심정지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안건 23건 및 새만금 특위 보고서 최종 의결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3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기로,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밀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특히 김제시의 오랜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새만금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며 그 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뜻깊게 매듭지었다.

또한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정자 의원은 지방 소멸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라는 주제로, 구도심 간판개선 및 도시재생 등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 순유입 1위 등 긍정적 지표를 활용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서백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그간 제시된 소중한 고견들이 김제시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남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행안면,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홍보 펼쳐

부안군 행안면은 지난 20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추진 중인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장학금 후원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군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안면 직원들은 면민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정기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재단 관계자는 "행안면의 적극적인 장학금 후원 홍보에 감사드린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지역 인재를 키우는 큰 힘이 되는 만큼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완주 공예오픈스튜디오 개소 '산단 문화 확장'

전시·교육·체험 결합 창작 플랫폼
근로자·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유휴공간활용 생활형 공예 활성화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최근 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일원에서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개소식'을 갖고 산업단지 내 문화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소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 선도 산단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예 기반 시설을 구축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예진흥원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공예인,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는 전시·교육·체험 기능이 결합된 창작·체험 복합 플랫폼으로, 공예인과 군민이 함께 활용하는 열린 창작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유휴공간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밀착형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군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방향과 연계해 전통 한지 등 지역 공예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예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예오픈스튜디오 개소식으로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드론 인재 키운다…유소년 지원 확대

초등학교 8곳 대상 장비 지원
교육인프라확대진로탐색연계

남원시가 관내 학생들의 드론스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드론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드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신청 학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교는 해당 예산으로 드론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장비를 확충하게 된다.

남원시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드론스포츠 장비를 지원하며 꾸준히 교육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는 관내 8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총 3,500만 원의 기자재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드론 교육이 실질적인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지역 내 드론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한다.

'드론스포츠 동호회 등록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규모 행사 참가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등 대외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방문형 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드론교실'과 집합형 프로그램인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을 운영해 드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드론 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 누구나 드론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소양면, 주민 주도 자립 통합돌봄 협동조합 창립총회

완주군 소양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허영식) 창립 총회가 24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다.

소양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통사협'이라 칭함)은 소양면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매년 120여명 씩 감소하는 인구문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2025년 9월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컨설팅을 받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준비했다.소통사협은 이날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소통사협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먹거리·건강·주거·생활서비스 등 통합돌봄 서비스, 둘째 공동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운영 사업, 셋째 교육·문화·예술 등 서비스, 넷째 스포츠 및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사업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완주군청 관계자(경로장애인과, 자원순환과, 수소신산업과)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 그리고 소양면장을 비롯한 기관장 및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부녀연합회회장, 방범대장 등 참석했다.

허영식 소통사협 이사장은 "소양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출발이지 미미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관심있는 분들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착과 살기 좋은 소양면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기업인 소통 강화…현장 지원 속도낸다

기업인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청년·고용 지원 정책 병행 추진

순창군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군수를 비롯해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내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업 애로사항 처리결과 설명 △기업 지원사업 안내 △유관기관 지원사업 설명 △군수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순창군은 1분기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기업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중점을 뒀다.

순창군은 현재 140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식·음료 분야 기업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근로환경 개선 지원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정규직 신규채용 임금 지원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등 일자리 및 청년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복합재난 대응 훈련 준비…협업체계 점검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13개 기관 참여 실전형 훈련

순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실시 예정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확산에 따른 요양병원 화재 상황을 가정한 복합 재난 대응 훈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체계와 상황 전파 절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자 수평대피 방식과 인명 구조·환자 이송 체계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5월 15일 순창요양병원 일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순창군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전북도시가스 등 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실전형 현장 대응훈련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인명 구조, 환자 분산 이송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청아원, 잇단 공모 선정 국도비 3억9천만원 확보 성과

남원시의 복합문화공간 '청아원'이 2026년 각종 공연예술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남원시는 시립예술단 전용 공연장인 청아원이 2026년도 주요 공연예술 공모사업 4건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3억 9,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청아원의 상설 창극 공연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로컬100 지역문화콘텐츠에 연속 선정됐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시비 부담액을 포함해 총 4억 5,800만 원 규모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우수 레퍼토리 초청과 자체 제작을 병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국악대전 참가 접수 시작…전국 명창 집결

6개 부문 13종목…4월 말 개막
윤일상 특별심사·컨설팅 지원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지로 수많은 명인·명창을 배출한 남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의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경연은 총 6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세부 분야는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청소년부) △무용(일반부, 청소년부) △관악(일반부, 청소년부) △현악·병창(일반부, 청소년부) △퓨전·창작국악 △판소리 신인대전 등이다.

참가 신청은 23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퓨전·창작국악은 원활한 온라인 사전 검토를 위해 오는 4월 10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대회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첫날인 4월 30일 신인대전과 퓨전창작국악 경연을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청소년부 경연, 5월 2일에는 일반부와 명창부 예선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일반부 본선과 대통령상을 가리는 판소리 명창부 결선이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국악창작 뮤지컬 '살다보면' 등을 작곡한 윤일상 씨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위원은 현장 심사뿐만 아니라 퓨전·창작국악 부문 대상 수상팀의 작품 완성도와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상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게는 영예의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 일반부 각 부문 대상은 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퓨전·창작국악 부문 대상은 국회의장상을 받게 되며, 판소리 고등부 대상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대회의 판소리 명창부 및 일반부 대상 수상자들이 펼치는 축하 공연은 제96회 춘향제 기간인 5월 4일 오후 1시에 남원 광한루 메인 특설무대에 오른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14억 투입 주거급여 수선사업 본격화

취약계층 141가구 맞춤 지원
LH 협업 정밀진단·관리 체계화

남원시는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기초주거급여(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된 자가주택을 체계적으로 수선·유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1,448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를 결정하며 올해는 △경보수 76가구 △중보수 30가구 △대보수 35가구로 구분해 총 141가구에 맞춤형 수선을 진행한다.

특히,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주택 정밀 진단부터 공사 관리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올해는 수선유지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00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LH와의 위·수탁 계약을 조기에 추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향교 대성전서 석전대제 엄숙 봉행

공기 2577년 석전대제 진행
군수·의장·교육장 헌관 참여 의례

<사진=순창군>

공기 2577년 순창향교 석전대제가 24일 순창읍 교성마을 순창향교 대성전에서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순창향교(전교 유양희) 주관으로 향교 유림과 내빈, 군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대제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초헌관을,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종헌관을 맡아 제례 시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헌작을 올렸다.

순창향교는 공자를 비롯해 맹자 등 중국의 4성과 10철, 그리고 설총·최치원·안향·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인후·이이·성혼·김장생·조헌·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등 우리나라 동국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국가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희생과 폐백, 합악, 헌수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성대한 전통 제례 행사로, 성균관은 문묘에서, 각 지역 향교는 대성전에서 각각 봉행하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우석대 '천 원의 아침밥' 올해도 든든하게

운영일수 43일→80일 대폭 늘려

완주군이 24일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2026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이순덕 군의원, 김정은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대표 등이 참여해 대학생들에게 로컬푸드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직접 배식하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군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올해 운영 규모를 작년보다 대폭 키웠다. 지난해 기준 43일이었던 일수를 올해 80일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운영한다.

제공하는 메뉴 역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역산 쌀을 활용한 다양한 덮밥류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권승환)과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정명석)를 통해 공급받은 신선한 제철 과일 등 영양가 높은 간편식 식단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이라며 "더 많은 학생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전주 통합반대 군민대책위 천막농성 지속…행안부 중단 촉구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야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통합절차 중단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이하 통반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6·3 지선 국면임에도 통합추진 세력들은 통합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 통반위는 통합추진 세력들의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며, 완주군의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통반위는 "지선 국면에 감춰진 채로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행안부 절차에서 잠시 멈춰 있으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지선이 끝나면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 통합추진 세력들은 또다시 통합 논의의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통반위는 "통합권고 여부에 대한 전권기관인 국민주권 정부의 행안부는 손을 놓고 있다.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통합 논의를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 국제대회서 메달 쾌거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이 3월 열린 폴란드 브와디스와보보 챌린저대회와 이탈리아 리냐노 챌린저 국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황인춘 선수와 장수군장애인탁구협회 소속 백영복 선수가 출전해 남자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그 결과 황인춘 선수는 동메달 1개를, 백영복 선수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국제무대에서 장수군의 위상을 높였다.

해당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 산하 폴란드 및 이탈리아 장애인탁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로, 선수들의 국제 랭킹포인트가 반영되는 중요한 대회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랭킹포인트는 11월 개최 예정인 2026 파타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과 직결되는 만큼 각국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목표로 체계적인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대상 재처리용기·소화기 배부

임실군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의 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재처리용기와 소화기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발생하는 재를 부주의하게 처리할 경우 불씨가 남아 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임실군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불씨가 남아 있는 재를 안전하게 보관·처리할수 있는 재처리용기와,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배부하여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진안군이 전북도의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평가로, 지자체의 기업 환경 조성 전반을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지표로 종합 평가한다.

진안군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구 7만 미만 그룹 도시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2025년에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확보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2건 추진(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연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장설립 제한 지역 내 농공단지 수도법 개정 건의 등 기업 근무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진안군을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인허가 365일 간편하게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 도입 4월 시범운영·7월 본격 시행

무주군이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도입으로 개발행위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돼 '정부24'를 통해서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4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가 전산으로 등재돼 종이 사용이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로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곽길영 무주군청 건설과 도시개발팀장은 "그동안은 직접 방문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은 물론,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준공검사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 가동

교통비·식비 지원 상해보험까지

전북 임실군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깊어지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일손 연결 창구를 본격 가동하며 농가 시름 덜기에 나섰다.

임실군은 '도농 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실군 로컬JOB센터를 통해 농가의 인력 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연계하는 '농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관내 농가를 방문해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맞춤형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 현장의 접근성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군은 관외 및 도시 거주 구직자에게 매일 1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였다.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에는 참여 인원 1인당 1만 원의 중식비를 보조해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사업 참여 구직자는 모두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는 물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임실읍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농번기만 되면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센터를 통해 검증된 인력을 연결받으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구직자 B씨 역시 "교통비 지원 덕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농촌 일손을 돕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남대천 달리기 프로그램 '눈길'

건강한 일상 향해 '런 위드 무주'

무주군이 달리기 입문 프로그램인 '런 위드 무주(Run with Muju)'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읍 남대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9일부터 약 6주간(~4.15.) 월요일 반과 수요일 반 각 20명씩 운영(19:00~20:00)된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달리기 동작, 속도 조절, 부상 예방법 등을 배우며, 개인의 체력 수준과 달리기 습관을 바탕으로 자세 교정, 걷기와 달리기 전환 훈련, 심박 기반 달리기, 시간주·거리주 등의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 시간주 _ 목표 거리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큼 달리는 훈련 / 거리주 _ 목표 거리를 정해 그 거리를 완주하는 훈련)

무주군이 달리기 입문 프로그램인 '런 위드 무주(Run with Muju)'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 중심의 '달리기 동아리' 구성을 지원해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보건의료원이 운영 지침 및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점차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지영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최근 달리기 등 가벼운 신체활동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 '런 위드 무주'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전문 강사로부터 올바른 달리기 방법을 배우면서 안전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7년 국도비 확보 총력

24일 대응보고회 개최 핵심사업 중심 확보 전략 마련

장수군은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7년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7년 국도비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요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해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이정우 장수부군수 주재로 실·국장, 부서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7년 국도비 17개 사업 1,064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장수군 역사문화권 조성사업(130억 원) △비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70억 원) △원대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2억 원) △산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23억 원) △계남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16억 원) 등이다.

이어 소방심신수련원과 국립 트레일센터, 국립 자연휴양림 등 국립시설 유치를 비롯해 국도 개량·신설과 고속도로·철도망 구축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금강 국가하천 승격과 동화댐 관련 현안 등 지역의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수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반딧불신협, 전국 경영평가 6군 대상

"조합원 성원에 감사드린다"

무주반딧불신협은 2025년 전국신협 종합경영평가에서 6군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전북신협 종합경영평가에서도 4군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무주반딧불신협 관계자는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무주반딧불신협 임직원은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장수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지역사회에 충효·예절 가치 확산

장수군은 24일 장수향교(전교 이경술)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석전대제는 석전제·상정·정제라고도 하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유교문화의 정수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국가무형유산이다.

이날 제례에서는 초헌관에 박팔봉, 아헌관에 이종관, 종헌관에 박명규 유림이 참여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의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초헌관이 분향과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되며 유교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번 석전대제는 지역 유림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선현들의 학덕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예절과 충효사상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추진

TF팀 구성 전수조사 실시

임실군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 ·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 · 구거, 계곡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4월부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 적용,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역대 최대 356명 운영 예정

임실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며 농가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 33명과 베트남 계절근로자 72명의 단체입국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274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입국자 105명에는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입된 라오스 근로자와 지난해 말 베트남 뚜옌꽝성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권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올해 임실군은 지난해보다 89명이 증가한 총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김제 금산면 어부바봉사단, 3월 마을공동밥상 운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신은학)과 함께 '3월 마을공동밥상' 팥죽 도시락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밥상 사업'은 매월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독거어르신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3월 마을공동밥상은 금산면 지역 주민 이용성씨가 기탁한 250만원으로 팥죽 도시락 500개를 준비해 독거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신은학 어부바봉사단장은 "어르신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해주신 이용성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작지만 큰 힘이 되어 어르신들의 영양보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주 박광천 씨, 군산사회복지관에 9개월째 피자 나눔

SNS 인연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응원과 아동 후원

전주에 거주하는 박광천 씨(1976년생)가 군산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9개월째 꾸준한 '피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정열)에 따르면, 박 씨는 매월 1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세 가정에 매달 따뜻한 '피자 파티'를 선물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박 씨의 나눔은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됐다. 평소 SNS를 통해 '킹스타피자 나운점' 사장님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박 씨는,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됐다.

박광천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웃을 돌보는 사장님의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웃의 온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임실 지사면지사협, 취약계층 20가구에 식탁 지원

지난 13일, 임실군 지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2인용 식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좌식생활로 인해 식사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편안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상식 공공위원장은"좌식생활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현섭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탁을 전달받은 어르신은"다리가 아파 식사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북은행, 무주군 저소득층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6개 읍면 120가정 전달 예정

전북은행은 지난 23일 무주군에 3백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20박스를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은 "꾸러미에 담긴 생필품처럼 전북은행 임직원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희망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앞으로도 전북은행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생필품 꾸러미는 즉석밥과 국수, 김 등의 식품과 물티슈, 치약 등 총 8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 12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며 무주군에 총 7,343만 원을 전달했으며 '고향사랑 무주사랑' 홍보에도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군산 중앙동 전주양가, 착한가게 동참으로 나눔 온기 더해

군산시 중앙동은 24일 "전주양가"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양가는 중앙동 착한가게 20호점으로, 정기기부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알게 된 후 지역사회와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착한가게' 참여를 결정했다.

전현우 전주양가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전주양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동은 착한가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고창좋은사람들, 장학금 1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3일 지역 모임인 '정읍고창좋은사람들'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읍과 고창 지역 주민 25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왔다.

박춘식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다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게 됐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평범한 이웃들의 정성이 모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됐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돼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체험관 견학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와 생생한 직업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 직업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잡(JOB)아라,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잡월드 견학과 경기대학교 캠퍼스 탐방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70여 개의 일반 직종 및 16개의 미래 유망 직종을 직접 체험하며,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성을 탐색하는 몰입형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꿈드림이 추진하는 올해 진로·직업체험 사업의 출발점으로, 참여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와 진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진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굿네이버스-장수어린이집 '좋은이웃 어린이집' 현판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김윤주)는 장수어린이집(원장 박용수)과 '좋은이웃 어린이집'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좋은이웃 어린이집'은 국내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유아 기관에서 함께하는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나눔에 동참하고 싶은 유아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용수 장수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좋은이웃 어린이집'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보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장수어린이집은 매년 "특별한 졸업식" 행사를 진행하여 졸업생들과 함께 세뱃돈을 모아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一事一言〉

과거를 바로 세우지 못한 국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과거청산① 특별고등경찰, 이른바 '특고'는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가장 잔혹한 도구였다. 이들은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사, 노동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체포했으며, 고문과 조작으로 수많은 삶을 파괴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국가 폭력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비극이 해방과 함께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친일 세력을 단죄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죄하지 않은 것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행정과 치안 공백을 이유로 친일 경찰들을 다시 기용했고, 그들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독립운동가를 잡던 손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권력을 쥐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역사적 역설이 또 있을까. 이는 단순한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 위에 세워진 국가인가.

정의를 짓밟은 자들을 단죄하지 못한 채 출발한 국가는 과연 도덕적 정당성을 온전히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실패는 단순한 과거의 흠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불신의 출발점이며, 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낳은 근본 원인이다.

더 불편한 질문도 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현실'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권력은 편의와 안정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정의를 유예했다. 그러나 유예된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왜곡과 불신으로 돌아온다.

우리 사회는 종종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려 한다. 일제강점기 일부 조선인들이 생존과 가족을 위해 친일을 선택했다는 논리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는 충분히 따져 묻지 않는다.

나 하나 살기 위해 나라를 등진 선택이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같은 선택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가정을 하나 해보자. 만약 그 선택의 대가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식과 손주, 그 후대까지 이어진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매국의 결과가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가문 전체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으로 남는다면,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연좌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책임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거사 청산은 솔직히 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이나 재산 환수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과 책임 규명,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완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과거를 들추면 분열이 생긴다는 말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뒤집은 주장이다. 과거를 덮었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다.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언제든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고, 사회를 갈라놓는 불씨로 남는다. 책임을 묻지 않은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국가는 기억 위에 세워진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외면하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수준이 결정된다. 친일 청산에 실패한 역사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정의를 말하면서도 그 정의를 스스로 완결하지 못한 이유다. 과거를 바로 세우지 못한 국가가 현재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반을 부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결국 과거사 청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격에 관한 문제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국가는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신뢰 없는 국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과거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과연 정의 위에 서 있는가. 이 물음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가다운 국가가 된다.

사 설

도축성적으로 입증된 전북 한우 개량의 쾌거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고능력 한우 개량 정책이 '도축성적'이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그 성과를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축산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했다는 점에서 전북형 축산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한 호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분명하다. 고능력 한우 후대축의 1++ 등급 출현율은 53.8%로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고, 도체중 역시 24kg 이상 더 나갔다. 품질과 생산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이다. 이는 곧바로 농가 수익으로 이어졌다. 마리당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출하된 물량 기준으로만도 약 19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뒀다.

특히 29억 원의 유전체 분석 투자로 95억 원 이상의 소득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은, 과학적 개량이 얼마나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북은 그동안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개량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5만 7천여 두에 달하는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 확보, 고능력 암소 선별과 집중 관리, 계획교배와 저능력 개체 도태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과학적,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 축산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축산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6년 도축된 후대 축에서도 등급과 도체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농가 소득 증대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북형 한우 개량 모델이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과제는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고능력 한우 표시제 도입은 그 해법 중 하나다. 유전적 우수성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농가의 개량 참여 의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가축시장 거래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품질 중심의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개량 성과가 특정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유전체 분석 비용 지원, 전문 컨설팅 확대, 청년 축산인 유입 촉진 등 후속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전북의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전북의 한우 개량 정책은 이제 '가능성'을 넘어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멈추지 않는 일이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진다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한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이 이미 눈앞에 열려 있다.

▲오늘의 시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 박노해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 지는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공장에 다니며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문화재열전

운서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1990년 6월 30일
-시대 - 1928년
-소재지- 임실군 관진로 61-20 (관촌면, 운서정)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도심 속 열린 문화공간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자리매김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이하 축제발전소)가 도심권 문화축제와 다양한 컨벤션 행사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하며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가 관리하고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는 김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오전과 오후, 야간, 휴일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대관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얻어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조성된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는 김제시 상공회의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이 입주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지평선 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커뮤니티센터는 지평선 족욕카페와 마을밥상이 입점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다.

도심속 열린문화 공간인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를 알아보자. 〈편집자 주〉

김제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구)제일극장 부지에 자리한 새로운 명소

요촌동 금만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로 이어지는 동서로 가로변에 위치한 축제발전소는 지난 2025년 6월에 준공한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축제행사와 플리마켓을 펼칠 수 있는 문화광장과 소규모 공연, 동아리 활동, 전시 프로그램, 컨벤션 행사를 열 수 있는 소공연장과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된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축제발전소는 1천여 명 규모의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야외 문화광장과 100여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다목적홀, 50개의 이동식 좌석과 조명시설이 완비된 소공연장이 갖춰져 있고 김제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구)제일극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공간으로 도심권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도 갖춘 공간이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지난해 김제시민 13,500여명 방문

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들썩들썩 한통속 K-김제 축제〉를 시작으로 그동안 7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축제,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컨벤션 행사가 개최됐으며 약 13,500여명의 시민들이 축제발전소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수대와 간이무대가 설치된 야외광장에서는 들썩들썩 한통속 K-김제 축제, 요촌썸머 물놀이 축제, 김제시 문화의 날 행사, 김제시 문화놀이터 등 다양한 축제행사가 개최됐으며 기타 동호회를 비롯한 생활문화공동체들의 버스킹 공연 장소로도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 전시, 체험, 각종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층의 다목적홀에서는 김제시 한궁대회, 보담 사회적협동조합 시상식,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올 초에는 시니어클럽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1,000여명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됐다.

그리고 무대와 조명, 음향시설이 완비된 2층 소공연장은 김제시 도시재생포럼, 일자리포럼 등 각종 컨퍼런스 행사와 더불어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성과공유회, 작가와의 만남, 영상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축제발전소의 운영주체로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선정

또한, 2025년 7월 축제발전소의 운영주체로 선정된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김제시 관계자와 조합원, 시민사회 대표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축제발전소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민 친화적인 축제발전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발전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거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한동엽 이사장은 "축제발전소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한 시설 안내와 대관 신청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권 매출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축제발전소는 요촌동 구도심 상권의 중심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 이외에도 인근에 공영주차장 4개소가 자리하고 있어 주차여건도 좋은 편이다. 또한 반경 200m 내에 편의점, 카페, 식당, 병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명소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축제발전소 인근의 화동길 상인회 김권하 회장은 "축제발전소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은 유동인구도 늘고 인근 상점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인들도 힘을 합쳐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축제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부서들과 적극 협조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축제발전소를 비롯한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